

**필립스, 일반 건전지 쓰는 휴대폰 개발**



필립스가 배터리 업체 에너지저, 이스라엘 배터리용 반도체 업체 테크티엄과 함께 개발한 '제니엄 NRG' 휴대폰은 자체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시중에 유통되는 표준 건전지인 AAA 배터리를 삽입해 쓰면 된다. AAA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최대 통화시간은 3시간이다.

이 휴대폰은 배터리 브랜드에 관계없이 어떤 건전지와도 호환이 되며 일회용뿐 아니라 충전식 AAA 배터리도 사용할 수 있다. 충전식의 경우 별도 충전기를 구입할 필요없이 휴대폰 충전기로 재충전이 가능하다.

필립스는 '제니엄 NRG'를 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가격과 판매 국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AT&T, 피렐리와 텔레콤이탈리아에 간접투자 협의**

AT&T는 텔레콤이탈리아의 지분 약 18%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올림피아의 지분 3분의 1을 매입하기 위해 이 회사의 대주주인 피렐리와 협상하고 있다. 피렐리는 의류사업으로 유명한 베네통가가 소유한 신티니아와 함께 올림피아의 주식 80%를 소유하고 있다.

아메리카모빌도 올림피아의 주식 3분의 1을 별도로 확보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AT&T의 투자는 아메리카모빌의 투자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AT&T와 아메리카모빌이 텔레콤이탈리아에 대한 간접투자에 나서는 것은 글로벌 사업과 제품 공동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아메리카모빌은 이번 지분 인수 협상이 타결되면 3개사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텔레콤이탈리아는 유럽 최대 통신업체로 시가총액이 약 400억유로(약 534억달러)에 이른다.

피렐리 이사회는 3월 12일 마르코 트론체티 프로베라 회장에게 올림피아 지분 전량 매각 등 모든 가능한 대안을 찾도록 하는 안을 승인했다. 피렐리는 올림피아가 보유한 텔레콤이탈리아 지분 탓에 지난해 주가가 21억유로나 평가절하되자 올림피아의 협력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피렐리는 그동안 여러 업체와 텔레콤이탈리아 지분 매각 협상을 벌였으나, 최근 스페인의 텔레포니카와 협상에 실패한 바 있다.

**소니, 다양한 콘텐츠 즐길 수 있는 브라비아 TV 출시**



소니가 디지털 방송 시청뿐만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과 접속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LCD TV '브라비아' 시리즈 새 모델을 3월 25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소니는 야후·라쿠텐 등 인터넷 업체와 제휴해 독자적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신 브라비아 시리즈를 출시한다. 신 브라비아는 일반 가정 내 PC나 음향기기와 접속하면 영상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신 브라비아 전용의 독자 콘텐츠인 '애플리케이션'에는 야후·라쿠텐 이외에도 아마존·소넷엔터테인먼트 등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포털인 '라쿠텐 이치비'나 '아마존 상품검색' '야후 옥션' '소넷 점집' 등 각종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초고속 통신업체에 접속해 TV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액트비라' 프로그램도 볼 수 있다.

**엘피다, 휴대폰용 70nm D램 5월 출시**

3월 2일 엘피다는 지난해 12월 히로시마 공장에서 세계 최초로 선포 70nm D램 생산을 개시한데 이어 5월부터는 휴대폰용 70nm D램을 생산한다.

생산하는 D램은 휴대폰이나 휴대 전자기기용 저소비 전력 모델로 우선 512Mb 제품을 출하하고 조만간 휴대폰용으로 1G D램도 양산화할 계획이다. 앞서 엘피다는 70nm 공정으로 서버 및 PC용 1G D램을 3월 초에, 512Mb를 3월 말 각각 출하했다.

D램은 선포 90nm에서 70nm로 미세화할 경우 반도체 칩 면적이 축소돼 실리콘 웨이퍼 1장에서 뽑아내는 반도체 개수가 60% 늘어난다. 미세화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한국 및 대만업체들의 설비투자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게 엘피다의 전략이다.

회사 측은 "70nm 칩은 90nm 칩과 비교해 동작 전류가 40% 절감되며 소비전력 및 발열량도 획기적으로 줄어 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엘피다는 PC 및 서버용에서는 일본에 이어 대만에서도 오는 7~9월 사이에 70nm 모델 양산을 개시한다. 생산은 파워칩테크놀로지와의 합작 공장인 렉스칩일렉트로닉스에서 담당하게 된다.

**일본, 2010년까지 고도 지도정보 시스템 구축**

일본이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작·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지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활용할 수 있는 '고도 지도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4월 2일 일본 정부는 방재·복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고도 지도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국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개인 정보를 포함한 지도 정보는 제외된다.

지도는 축척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지역의 지도라도 합쳐 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또 전자화된 지도는 보존 형식이 달라 복수의 지도를 자유롭게 합치거나 검색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홍수 등 재난 발생시 특정 지역의 침수 피해 상황과 같은 지역의 노인 주거상황을 나타내는 지도를 합쳐 표시할 수 있다면 기동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 포장이나 정체 정보 등도 합쳐서 검색하면 운전자가 외출시 막히지 않는 길을 사전에 검색할 수 있다.

**MS, 카네기멜론 센터 건립**



카네기멜론 대학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새로운 협력 사업을 발표했다. 협력의 구체적 내용은 MS가 150만달러(약 14억여 원)를 지원해 '컴퓨터 기반의 생각(Computational Thinking)'을 연구하는 MS 카네기멜론 센터'를 세운다는 것이다. 일단 MS 같은 회사가 '컴퓨터 기반의 생각'이라는,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

는 분야의 연구를 지원한다는 사실은 놀랍다. MS가 보도자료에서 밝혔듯 이번 합작 연구소는 MS 산하의 MS 리서치가 대학과 특정 분야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전 세계 8번째로 세운 것일 정도로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연구소에서 추구하는 방향을 좀 더 들여다보니 놀라움은 더욱 커져만 간다.

카네기멜론 컴퓨터공학 대학 학장인 자넷 윈 박사에 따르면 '컴퓨터 기반의 생각'이란 생물학·천문학·경제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 분야와 심지어 일상 생활에서도 컴퓨터의 능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컴퓨터공학을 컴퓨터공학과 테두리 안에만 가두지 않고 다양한 분야 학문과 연계해서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얘기다.

**일본 '원세그폰' 올 여름 1000만대 돌파**



지난해 4월 개시된 일본의 휴대폰 디지털 방송 '원세그'가 가파른 보급세를 타면서 관련 휴대폰·카네비게이션 등 단말기 출하가 급증하고 있다.

원세그용 휴대폰 출하 대수가 올 여름 무렵이면 100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휴대폰 업체들이 원세그 모델을 적극 판촉하고 출하량을 늘린 것이 주 원인이다. 또 카네비게이션 등 수신 단말기 출하도 크게 늘었다.

이러한 추세와 내년으로 예정된 원세그

전용 방송 '전면 해금'의 여파로 통신·방송업계의 특수가 기대된다고 한다.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가 최근 정리한 원세그 지원 휴대폰 출하 대수는 지난 2월 말까지 약 497만대를 기록했다. 2월 단독 출하대수는 약 113만대로 전월 대비 무려 2.6배나 급증했다. 3월 이후에도 월간 100만대 정도의 출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7~8월 무렵에는 누계 출하대수가 1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 휴대폰 계약자 건수가 약 1억건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가 원세그폰을 지니게 된다는 계산이다.

**구글, 새로운 개념의 통계적 기계번역 서비스 추진**

3월 28일 로이타통신에 따르면 프란츠 오프 구글 번역 책임자는 세계 각국인들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세계 주요 언어를 통해 문서를 즉시 번역해 볼 수 있는 통계적 기계번역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사람들이 이미 2개의 언어로 번역한 수 억개의 문서를 컴퓨터에 입력한 다음 번역 패턴을 식별해 번역에 이용할 계획이다. 문서로는 국제연합(UN)과 유럽연합(EU) 문서가 주로 활용된다. 특히 구글의 번역 서비스는 다른 언어로 번역했을 때 오해를 낳을 수 있거나 민감한 단어에 대한 통계적 분석도 가능하다.

프란츠 오프는 "오랫동안 기계번역 분야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구글의 아랍어-영어 번역 결과를 보고 무척 놀라워했다"며 "번역의 품질이 완벽하진 않지만 기존 기계번역보다는 한층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다.